

# 일본 금형사 최근 현황

## 1. 최근 금형산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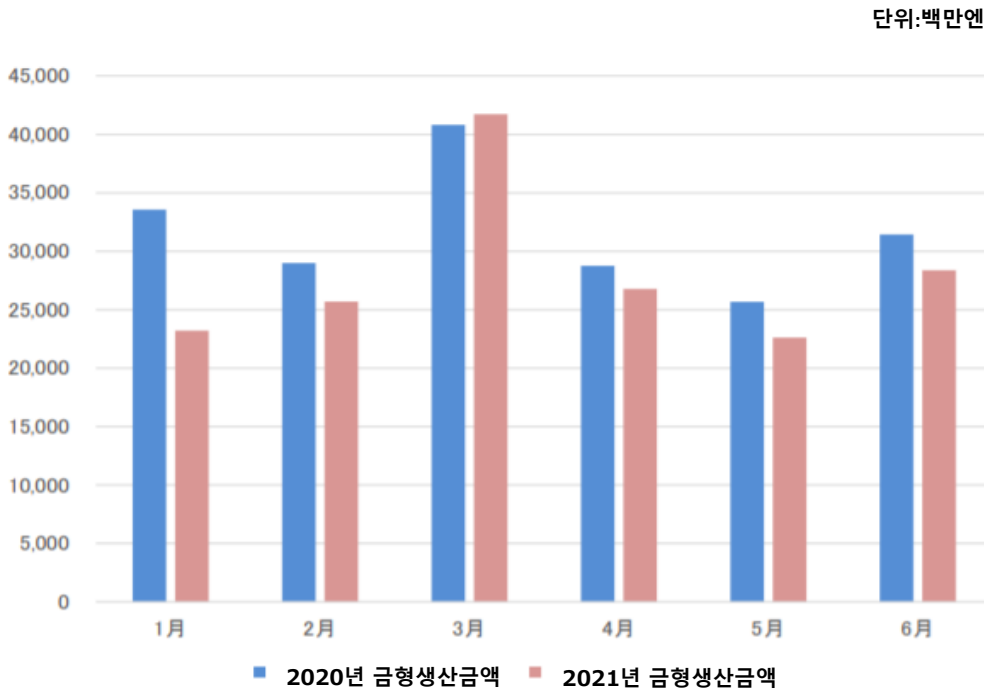
- 아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국시장은 코로나 위기에서 빠져 나온 상태이며, 2021년 12월에는 코로나 전 상태로 돌아 갈 것이라고 판단.
- 일본시장은 완전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, **2022년 4월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.**

### ○ 일본 금형 종류별 생산액

		단위:백만엔						
		1月	2月	3月	4月	5月	6月	1~6月合計
2020년 금형생산금액		33,569	29,000	40,826	28,752	25,671	31,448	189,266
2021년 금형생산금액		23,208	25,703	41,742	26,787	22,616	28,380	168,436
전년동월비		69.1%	88.6%	102.2%	93.2%	88.1%	90.2%	89.0%
증감		↓	↓	↑	↓	↓	↓	↓

출처: 경제산업청 기계통계

### ○ [2020년·2021년 1월~6월 금형생산금액의 추이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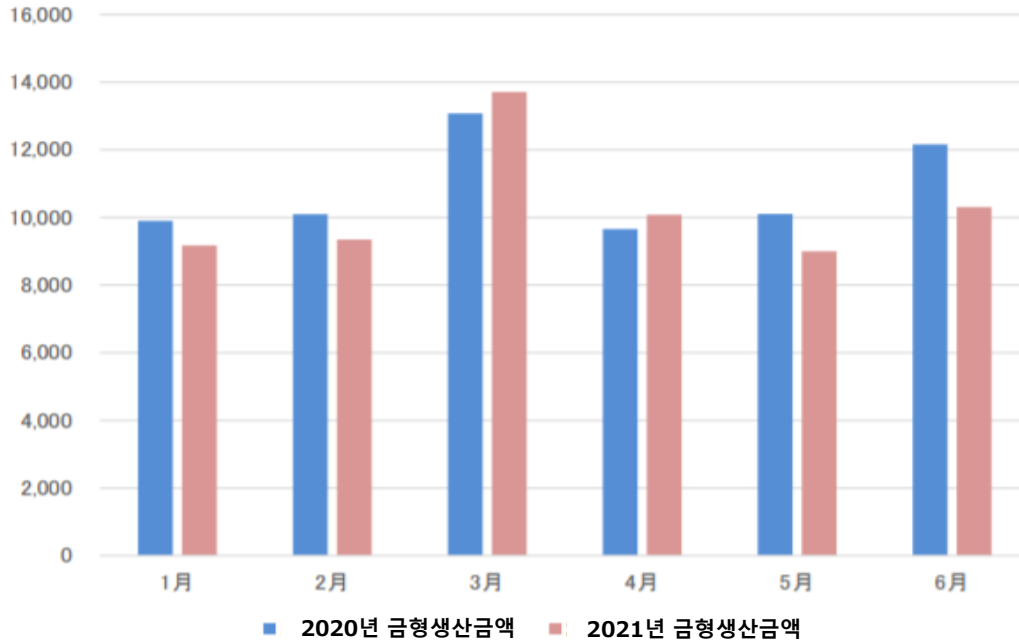
### ○ 일본 플라스틱 금형 생산액

		단위:백만엔						
		1月	2月	3月	4月	5月	6月	1~6月合計
2020년 금형생산금액		9,895	10,099	13,078	9,656	10,100	12,159	64,987
2021년 금형생산금액		9,170	9,348	13,709	10,083	9,001	10,308	61,619
전년동월비		92.7%	92.6%	104.8%	104.4%	89.1%	84.8%	94.8%
증감		↓	↓	↑	↑	↓	↓	↓

출처: 경제산업청 기계통계

○ [2020년·2021년 1월~6월 금형생산금액의 추의]

단위:백만엔



○ 일본 프레스 금형 생산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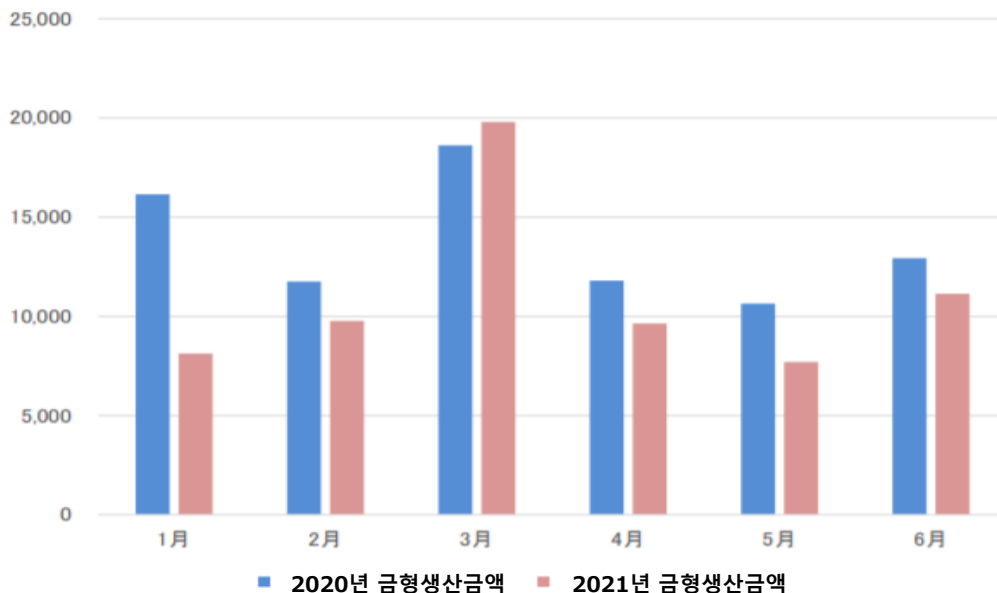
단위:백만엔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1~6월合計
2020년 금형생산금액	16,154	11,762	18,621	11,807	10,645	12,943	81,932
2021년 금형생산금액	8,129	9,766	19,805	9,638	7,703	11,145	66,186
전년동월비	50.3%	83.0%	106.4%	81.6%	72.4%	86.1%	80.8%
증감	↓	↓	↑	↓	↓	↓	↓

출처: 경제산업청 기계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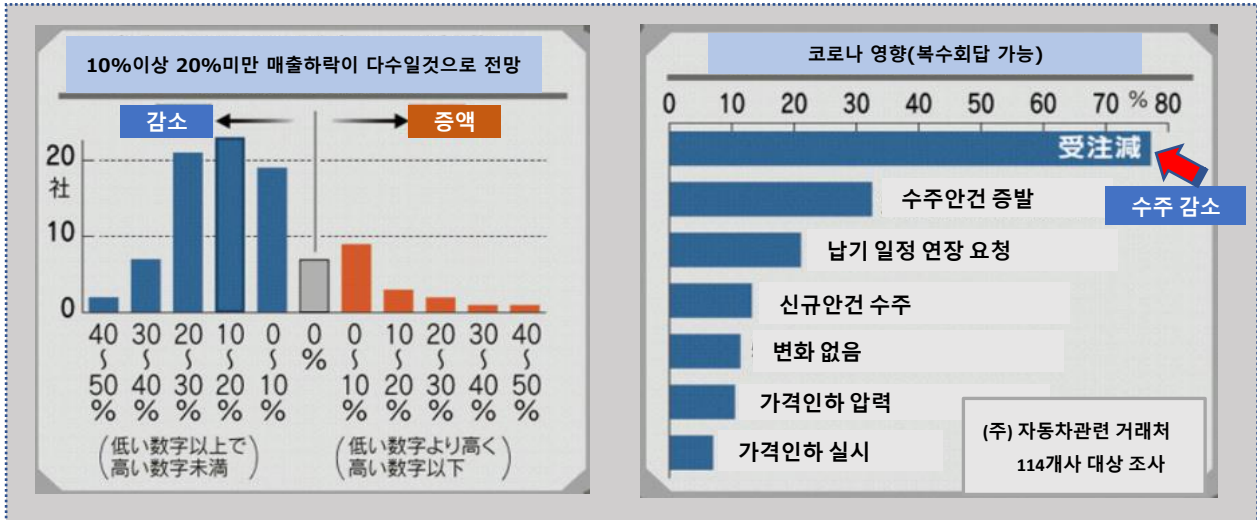
○ [2020년·2021년 1월~6월 금형생산금액의 추의]

단위:백만엔



## 2. 2021년도까지 계속되는 코로나 타격

- 전세계에 타격을 준 코로나 확산으로 금형회사 80% 이상이 영향을 받거나, 수주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됨(일본경제신문 조사)
-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관련 거래처가 있는 금형회사 수주율이 77.2%, 가전, 전자기기관련 거래처가 있는 금형회사 수주율이 79.6% 감소함.



- 일본 산업성 기계통계를 확인하면, 19년도 금형 생산량은 전년도대비 6.6% 감소 금형 베이스로는 0.5% 감소인 3987억엔에 그쳤음.
-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자동차관련 투자이익을 시키는 결과를 내었지만, 중국금형과 계속되는 단가하락 열기는 어느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가져왔다 평가함.
- ➔ 하지만, 코로나 환자 확산으로 앞을 전망할 수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온 상태라 볼 수 있음.

### 《향후 전망》

- 금형수요를 좌우 하는 자동차 제조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차량판매 부진으로 2021년 11월까지 감산이 계속되고 있음.
- 하지만, 점차 회복이 되어, 도요타자동차는 글로벌 생산대수를 85만대~90만대(11월 이후)로 계획하고 있음.
- 《참고》 20년11월: 83만대, 21년 9월/10월: 각 약 50만대 ~ 60만대
-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량이 점차 회복되어 가면서, 금형수요 또한 점차 풀릴 것으로 판단되나 각 금형사 들은 2022년 4월이후가 되어야 발주 수량도 회복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## 3. 리스크 분산이 어려운 제조업

-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코로나쇼크로 인하여 제조업의 리스크 분산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.
- 생산거점을 복수의 나라에 분산시켜 재해로부터 리스크를 저감시켜온 일본 제조업은 이번 각 나라의 도시봉쇄로 인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게 사실임.
- 코로나로 인해 각 기업들은 국내이관을 시야로 움직이고 있으며, 일본정부에서도 해외 거점을 국내로 이관하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 건당 150억엔을 지원중에 있음.
- 하지만, 일본 국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및 인건비 인상으로 국내 이관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,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리스크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#### 4. 한국 기업이 현재 진출을 위한 가이드

##### 《금형별 회복시기》

- 금형별로는, 다이캐스팅, 단조, 프라스틱 금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, 프레스 금형일경우 회복세가 매우 빠를 것으로 판단됨.
- 그 이유로서 자동차 전동화가 진행되어 엔진부품의 감소추세와 코로나 확산으로 다이캐스트 및 주조 제품들이 크게 수요가 줄고 있음.
- 프레스일 경우 차량 보디를 시작해 의장관련 제품이기에 때문에 상황이 다름.
- 향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시장을 자극시키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계속 투하할 것으로 보이며, 의장관련 부품도 계속해서 개발될 것으로 판단됨.
- 프레스금형이 활발이 움직이게 되면 점차 타 금형또한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.

##### 《마케팅 공략 지역 필터링》

- 코로나로 인해 체력이 바닥이난 중소기업은 일본 영업 대상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택해 PIN POINT 영업전력이 필요함(하기 각 지역별 금형사 생산액 참조)
- 금형 금액이 커질 수록 대면미팅이 반듯이 필요하며, 경우에 따라 일본 지점도 필요함.
-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일본 거점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 졌으며, 일본 기업또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임.

#### 도시별 금형생산액(2019년)

단위:백만엔

順位	前年		프레스	단조	단조/다이캐스팅	프라스틱	고무/유리	기타 금형/부품	合 計
1.	①	아이치	89,720	11,911	19,177	57,172	4,765	66,314	249,059
2.	③	카나가와	97,410	709	2,542	19,395	2,744	9,510	132,310
3.	②	시즈오카	44,011	3,039	10,391	29,289	1,685	25,179	113,594
4.	④	오사카	21,400	6,446	3,707	34,395	3,935	17,833	87,716
5.	⑥	기후	25,953	1,162	7,872	25,478	543	6,446	67,454
6.	⑤	히로시마	27,669	1,178	17,252	7,430	1,262	2,698	57,489
7.	⑦	나가노	17,358	X	4,366	28,420	0	4,524	54,668
8.	⑧	토야마	5,797	281	5,135	35,671	0	4,376	51,260
9.	⑨	군마	27,156	216	3,860	13,761	X	5,961	50,954
10.	⑩	사이타마	9,387	1,810	5,388	18,061	3,305	6,580	44,531

資料:工業統計(品目別統計表)

※ 従業員3名以下の事業所は含まれない。  
 ※ ★印は算出事業数が1または2のため秘匿。  
 ※ その他の金型同部品、附属品は平成20年の統計から「その他の金属用金型、同部分品・附属品」「その他の非金属用金型、同部分品・附属品」に分けて集計をしているので、この2つを加えたものを掲載している。X印はどちらかの算出事業数が1または2のため秘匿。

##### 【構成比】 ※上位10都道府県における型別生産額の構成比

順位	前年		프레스	단조	단조/다이캐스팅	프라스틱	고무/유리	기타 금형/부품	合 計
1.	①	아이치	36.0%	4.8%	7.7%	23.0%	1.9%	26.6%	100.0%
2.	③	카나가와	73.6%	0.5%	1.9%	14.7%	2.1%	7.2%	100.0%
3.	②	시즈오카	38.7%	2.7%	9.1%	25.8%	1.5%	22.2%	100.0%
4.	④	오사카	24.4%	7.3%	4.2%	39.2%	4.5%	20.3%	100.0%
5.	⑥	기후	38.5%	1.7%	11.7%	37.8%	0.8%	9.6%	100.0%
6.	⑤	히로시마	48.1%	2.0%	30.0%	12.9%	2.2%	4.7%	100.0%
7.	⑦	나가노	31.8%	X	8.0%	52.0%	0.0%	8.3%	100.0%
8.	⑧	토야마	11.3%	0.5%	10.0%	69.6%	0.0%	8.5%	100.0%
9.	⑨	군마	53.3%	0.4%	7.6%	27.0%	X	11.7%	100.0%
10.	⑩	사이타마	21.1%	4.1%	12.1%	40.6%	7.4%	14.8%	100.0%